

AUTHOR 소기천

TITLE 칼빈의 신약주석에 나타난 λειτουργία에 관한
연구

IN 한국개혁신학

Vol. 27 (2010): 101-128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I. John T. McNeill, ed.,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 In: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I: 123-236.

_____. "To the Church of Geneva"(Strasbourg, 25th June 1539).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ed.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IV.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142-9.

_____. "To Cranmer"(Geneva, April 1552). In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ed.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V.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345-8.

_____. "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Art. XXX, In: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II.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9): 356-82.

Harkness, Georgia. *The Church and Its Laity*.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Parker, T. H. L. *John Calvi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Walker, G. S. M. "Calvin and the Church". In Donald K. McKim, ed.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212-30.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풍만출판사, 1985.

칼빈의 신약주석에 나타난 λειτουργία에 관한 연구

소기천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학)



헬라어에서 λειτουργία는 일차적으로 섬김을 뜻하는데, 이와는 달리 한국교회는 λειτουργία의 의미를 전적으로 예배의 영역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에서 원래 예배를 뜻하는 단어인 λατρεία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본 논문은 λειτουργία와 λατρεία를 신약성서에 나타난 모든 용례를 칼빈의 주석과 비교 검토하여, 각각의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λειτουργία와 λατρεία의 본래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λειτουργία가 그 의미에 있어서 διακονία와 공유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διακονία에 관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λειτουργία의 의미를 더욱 더 균형 있게 드러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우선 예배를 λατρεία로, 봉사를 διακονία로, 섬김을 λειτουργία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λειτουργία와 λατρεία와 διακονία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그 의미에 있어서 서로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예배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칼빈이 자신의 주석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신약성서가 제시한 본래적 의미를 충실히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주제어 : 레이투르기아, 라트레이아, 디아코니아, 칼빈, 섬김, 예배
- 투고일 : 2009. 11. 07 • 수정 투고일 : 2010. 1. 23. • 게재 확정일 : 2010. 3. 16.

1. 서론

칼빈이 신약성서를 주석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섬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감당해야 할 '복음의 제사장 직분'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롬 15:16)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과 '전제로 이해한다'(빌 2:17. 참고, 딤후 4:6). 여기서 칼빈이 주로 설명하는 헬라어 동사의 원형이 $\sigma\pi\acute{\epsilon}\nu\delta\omicron\mu\alpha$ 이다.¹ 이 단어($\sigma\pi\acute{\epsilon}\nu\delta\omicron\mu\alpha$)는 섬김을 의미하는 헬라어 λειτουργία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연하여 말하자면, 로마서 15장 16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λειτουργὸν Χριστοῦ)과 빌립보서 2장 17절의 믿음의 제물(λειτουργία τῆς πίστεως)은 모두 헬라어 λειτουργία와 연관된다. 칼빈은 λειτουργία를 그리스도교 사역자들이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실천해야 할 믿음의 중요한 격목으로 이해하고 있다.²

본 논문은 칼빈의 신약성서 조석에 나타나 있는 λειτουργία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에서 λειτουργία를 예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관행

에 문제를 제기하고, λειτουργία를 섬김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λατρεία를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도록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λειτουργία와 λατρεία를 신약성서에 나타난 모든 용례를 칼빈의 주석과 비교 검토하여, 각각의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λειτουργία와 λατρεία의 본래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λειτουργία가 그 의미에 있어서 διακονία와 공유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διακονία에 관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λειτουργία의 의미를 더욱 더 균형있게 드러내고자 한다.

2. 문제제기

한국개혁신학회 제24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송영목은 λειτουργία와 λατρεί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렸다.

단수 명사로서 '예전' (liturgy, 헬라어 λειτουργία, 빌 2:30)은 교회의 성찬 예식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회의 인간적인 행위로서의 예배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었다.³

이러한 설명에서 예전은 λειτουργία라는 헬라어로 표기되면서 예식과 예배라는 단어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λειτουργία가 예전, 예배, 혹은 예배를 뜻하는 단어인가?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에서 원래 예배를 뜻하는 단어인 λατρεία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여기서부터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¹ John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trans. T. H. L. Parker (Grands Rapids: Eerdmans, 1965), 259-260.

² Ibid.,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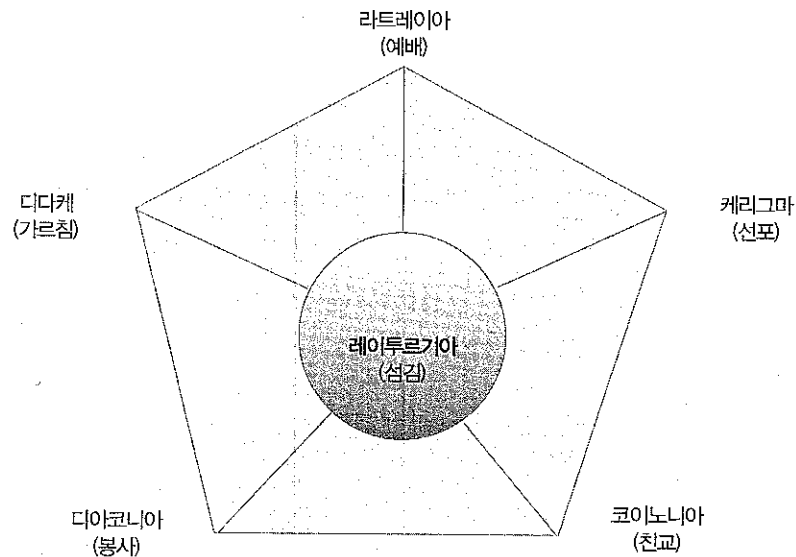
³ 송영목,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한국개혁신학회 제24차 정기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8년 5월 24일), 67 각주 1번; 참고, R. C. D. Jasper, "Liturgies," *A New Dictionary of Liturgy and Worship*, ed. by J. G. Davies (London : SCM, 1986), 314.

헬라어에서 λειτουργία는 일차적으로 섬김을 뜻하는데, 이와는 달리 한국교회는 λειτουργία의 의미를 전적으로 예배의 영역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 같은 필자의 이해에 관하여 김성규는 한국개혁신학회 제27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국교회에서 λειτουργία를 예전적 의미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자칫 이 용어가 왜곡되어 예배를 제의적인 참여에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린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상호 교동이 차단되고 일방적인 예전적 형태가 주를 이루는 데는 이 같은 용어의 잘못된 사용에 큰 원인이 있다.⁴

필자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λειτουργία에 관해 성서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레이투르기아의 구조



이 구조를 보면 λειτουργία는 '섬김'이 '중용의 도' (via media)란 차원에서 다양한 의미와 연관되고 있다. 영문판 기독교강요를 번역한 포드 B. 배틀즈는 이러한 칼빈의 신학방법론을 중용이라고 불렀는데, 필자는 이것을 중용의 신학이라고 부르고 싶다.⁶ 이러한 칼빈의 중용의 신학은 섬김의 신학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⁷ 한국교회가 '예전'이란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λειτουργία가 지닌 원래의 의미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예배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섬겨주시는 일이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 (Gottesdienst) 혹은 '하나님의 일' (Opus Dei)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⁸ 이점에서 예배가 섬김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레이투르기아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섬김을 뜻하는 단어이며, 신약성서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인 라트레이아가 따로 있다. 물론 신약성서에서 레이투르기아와 라트레이아가 또 다른 단어인 디아코니아와 상호 유사하면서도 상이점이 많다.⁹

이러한 설명에 의하면, λειτουργία는 일차적으로 섬김이란 의미를 가장

⁴ 김성규, "소기천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한국개혁신학회 제27차 정기학술대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9년 11월 7일, 한국개혁신학회), 108.

⁵ 소기천, "신약성서에 나타난 레이투르기아(섬김)의 기본 구조," 『성서학연구원 저널』 2 (2009년 6월): 16.

⁶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03과 각주 44. 중용의 신학에 관하여 박경수는 '중용의 길'이라고 표현한다. 참고, Ford Lewis Battles, "Calculus Fidei: Some Rumina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Theology of John Calvin,"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139-246.

⁷ 필자는 앞으로 여생동안 힘닿는 대로 섬김의 신학을 세워나가는데 주력하겠다. 섬김의 신학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용의 신학이라는 점을 증시하여 신앙과 삶을 밀접하게 연결해 나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다.

⁸ 정일용,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범지, 2005), 17-18; idem, "한국교회의 예배 변화와 예전의 문제점," 『한국개혁신학회 제24차 정기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8년 5월 24일), 33-34.

⁹ 소기천, "신약성서에 나타난 레이투르기아(섬김)의 기본 구조", 17.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를 뜻하는 *διακονία*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칼빈의 신약성서 주석에 의존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면 다음에 계속되는 세부 항목들에서 *leitourgia*를 *latreia*와 *diakonia*와 상호 연관을 지어서 그 유사한 의미들을 연구하여 보도록 하자.

3. 섬김으로서의 *leitourgia*

제의나 제사를 의미하는 *latreia*와는 달리,¹⁰ 원래 *leitourgia*는 공적인 섬김이나 개인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이다.¹¹ 다시 말해서 *leitourgia*는 제의나 제사보다는 섬김의 의미가 일차적으로 강하다.

신약성서에서 *leitourgia*는 총 6회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다. 그 의미는 섬김을 뜻하는데, 우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번역(개역개정판)으로 나타나 있다. 눅 1:23(직무), 고후 9:12(봉사), 빌 2:17(섬김), 빌 2:30(섬기는 일), 히 8:6(아름다운 직분), 히 9:21(섬기는 일). 여기서 *leitourgia*는 단 한 차례도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예배'와 '예전'이란 단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칼빈은 이상의 6회 중에서 누가복음 1장 23절만 제외하고 다른 구절들에 관하여 주석을 하였다. 칼빈은 공관복음서를 상호조화와 공통자료의 관점에서 주석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칼빈은 소위 Q 연구의 전문가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칼빈은 누가복음 1장 23절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공통으로 등장하지 않는 구절이기에 논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칼빈이 논하고 있는 구절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¹⁰ 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ition), Revised and edited by Frederick William Dank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587.

¹¹ 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591.

고린도후서 9장 12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leitourgia*를 섬김(serving)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칼빈은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들을 섬긴 일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도 형제들을 섬기는 올바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¹² 빌립보서 2장 17, 30절과 관련하여 칼빈은 *leitourgia*의 의미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예배(*operari sacris*)의 일환으로 이해하면서도 복음의 사역자들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이해하고 있다.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이다.¹³ 칼빈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러한 섬김을 온전하게 이루신 모델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한다.¹⁴ 히브리서 8장 6절에 언급된 "더 뛰어난 직분"이란 표현에 나타나 있는 '직분'이란 단어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칼빈은 이 단어를 통해서 더 뛰어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주석하면서, 자신의 기독교강요를 직접 인용하여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사라지게 하였고 결론을 짓는다.¹⁵ 이러한 설명은 예수의 사역이 지니고 있는 구원사적 섬김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 신비적으로 뿌려졌다는 사실에 연결된다(참고 히 9:21). 바로 이러한 구절과 관련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가져오는 죄 씻음을 강조하고자 한다.¹⁶

¹²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Calvin's Commentary. trans. T. A. Amail (Grands Rapids: Eerdmans, 1964), 125.

¹³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ians and Colossians*, 260.

¹⁴ Ibid., 266.

¹⁵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 of St. Peter*, trans. William B. Johnston (Grands Rapids: Eerdmans, 1963), 108-109.

¹⁶ Ibid., 126

신약성서에서 동사형 레이투르게오는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어디서 유래하였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쓰임이 나타나고 있는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개역개정판): 행 13:2(섬겨), 롬 15:27(섬기는), 히 10:11(섬기며).

다행스러운 것은 칼빈이 간단하나마 이 3구절에 관해 모두 주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자. 사도행전 13장 2절은 바나바를 위시하여,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바울] 등이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칼빈이 주목하는 것은 이 구절에 언급된 인물들이 모두 동역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란 이름 대신에 아직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아직 바울의 역할이 초기 교회에서 전면에 부상되지 않은 단계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칼빈은 당분간 바울이 '사역의 일상적인 질서' (*a vulgari ordine ministrorum*)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바울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¹⁷ 이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동등한 사역자로 섬기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두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시다.¹⁸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 나타나 있는 레이투르게오와 관련하여 로마서 15장 25절에 나타나 있는 다아코네오와 연결하여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곧 라틴어로 *ad ministrandum* 곧 "섬기는"이란 뜻으로 사용하면서, 칼빈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빛을 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함께 나누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¹⁹ 히브리서

¹⁷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9.

¹⁸ Calvin, *The Acts of Apostles 1-13*, trans. John W. Fraser and W. J. G. McDonald (Grands Rapids: Eerdmans, 1965), 353-54.

¹⁹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10장 11절은 제사장들이 매일 섬김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항상 죄를 없애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이 구절에 관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이 지닌 일회적인 사역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주석하고 있다. 곧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받아들인다.²⁰ 이러한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언급된 '성화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레이투르기아와 레이투르게오는 일차적으로 예배에서의 섬김을 뜻하는 단어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고 이 단어들만 반드시 예배와 예전에 국한된 섬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마 5:23-24)는 말씀처럼, 레이투르기아와 레이투르게오는 단지 예배하는 자들이 수행하는 예배를 위한 섬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살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단어이다.²¹

이러한 세상에서의 섬김이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leitourgia*는 하나님의 일에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곧 하나님의 일에 서로 섬기는 동역자들은 그리스

trans. Ross Mackenzie (Grands Rapids: Eerdmans, 1973), 315-16.

²⁰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 of St. Peter*, 138. 안타깝게도 칼빈은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간주하였지만, 이것은 아직 히브리서에 관한 저작권이 확립되기 이전 시대의 견해이기 때문에 성서 비평학이 대두된 이래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²¹ 소기천, "신약성서에 나타난 레이투르기아(섬김)의 기본 구조", 18.

도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단번에 이루신 구속사역을 지속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모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일에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와 관련하여, 일반명사형으로 변형된 레이투르고스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일꾼, 사역자, 돕는 자, 혹은 섬기는 이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개역개정판): 롬 13:6(일꾼), 롬 15:16(일꾼), 빌 2:25(돕는 자), 히 1:7(사역자들), 히 8:2(섬기는 이). 칼빈은 이 모든 구절들을 모두 취급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레이투르고스에 관해 간단하나마 칼빈이 언급한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이 로마서 13장 6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꾼'에 관해 주석하지는 않지만,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로마서 15장 16절의 주석에서 에라스무스를 인용하면서 "복음을 위해 섬기는"²² 일꾼으로서 순결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²³ 특별히 칼빈은 에바브로디도(빌 2:25)에 관해 주석을 하면서 그를 바울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로 묘사하면서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돕는 자'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칼빈은 에바브로디도야말로 복음을 위해 진실하게 섬긴 사람이라고 평가한다.²⁴ 비록 칼빈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인용된 구절과 관련하여 천사에 관한 내용만 주석하지만, 천사의 역할이 메신저로서 순종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곧 천사의 메신저 역할 이외에 다른 아

²² 이와 유사한 의미로 형용사형이 사용된 경우가 다음과 같이 신약성서에는 단 한번 나오지만[히 1:14(섬기는)], 구약성서에는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출 31:10; 39:12; 민 4:12, 26; 대하 24:14).

²³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310.

²⁴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263-64.

무 역할도 중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함으로써,²⁵ 당시에 만연되었던 천사숭배를 배격하였던 히브리서 기자의 신학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나타난 '섬기는 이'에 관해서도 칼빈이 직접적으로 주석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자상 사역에 대해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의 육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생명을 주신다"²⁶고 주석한다. 이로써 칼빈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감추어진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칼빈은 λειτουργία와 유사한 개념으로 선행에 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선행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여기서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인간의 행위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얻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본다.²⁷

4. λειτουργία와 λατρεία

칼빈은 로마 천주교 신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서는 모호하며 이중적이다"²⁸라는 진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았던 하나님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심지어 희생제사는 도래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킨다."²⁹고 주장하였다. 칼빈은 교회의 예배

²⁵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 of St. Peter*, 13.

²⁶ Ibid., 105.

²⁷ 존 T. 맥네일, 『칼빈 기독교 강요』 제3권, 로고스 번역위원회 역 (서울: 로고스, 1987), 312-13.

²⁸ Andreas Lindemann, "Johannes Calvin als Ausleger der Heiligen Schrift,"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cal Studies*, 3 (2009): 3.

²⁹ Ibid., 4.

에 있어서 2가지의 대표적인 표지로 말씀과 성례를 꼽는다. 칼빈 당시에 로마 천주교는 바로 이 2가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아니었으며 미신으로 퇴락할 수밖에 없었기에 우상숭배와 불경건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³⁰ 칼빈은 심지어 기독교강요에서 당시 로마 천주교 안에 우상숭배가 있었기에 조상과 화상을 숭배하는 것을 비판하였다.³¹ 신약성서에서 일차적으로 예배와 예전을 뜻하는 말은 λατρεία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 신약성서에서 λατρεία는 총 4회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다. 그 의미는 우리말 번역(개역개정판)에서 외형적으로 λειτουργία와 아주 유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 나타나는 λατρεία라는 단어의 용례를 칼빈의 신약성서 주석에서 살펴보자. 요 16:2(섬기는 일), 롬 9:4(예배), 롬 12:1(영적 예배), 히 9:1(섬기는 예법).

비록 칼빈이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λατρεία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희생 제사” 곧 ‘예배’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칼빈은 강조한다.³² 특히 칼빈은 로마서 9장 4절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예배’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율법적인 방식 곧 제의와 예식과 같은 율법의 일부분으로서의 의미를 묘사하고 있다.³³

이 같은 지적은 칼빈의 예배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³⁰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98-99.

³¹ 존 T. 맥네일, 『칼빈 기독교 강요』 (제1권), 105-107.

³² John Calv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21*, trans. T. H. L. Parker (Grands Rapids: Eerdmans, 1959), 113-14.

³³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195.

아주 의미심장하다. 곧 칼빈에게 예배는 율법이 언급한 대로 드러지는 합법적인 절차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언급된 ‘영적 예배’에 관해 칼빈은 ‘순전한 예배’³⁴와 ‘합리적인 예배’³⁵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적법한 예배 절차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여 λατρεία라는 단어를 언급한다. 여기서 칼빈은 역시 합리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절차를 준행하여 드리는 합법적인 예배로 이해한다.³⁶ 특히 칼빈은 히브리서 9장 1절에 언급된 λατρεία 곧 ‘섬기는 예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많은 사람들이 λατρεία를 대격으로 취급한다. 나도 λατρεία를 δικαιώματα와 더불어 이해하는 사람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mu\lambda\tau\rho\epsilon\iota\alpha$ (huqim)은 헬라어로 δικαιώματα로 표기되는데 그 의미는 제노나 제의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³⁷

칼빈의 이러한 이해는 λατρεία를 구약성서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은 희생 제사, 목욕 재개 등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 절차를 총망라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칼빈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는 하나이다.³⁸ 곧 λατρεία는 율법이 명령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법이다.

이와 더불어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율법적 제의’를 영적인

³⁴ Calv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21*, 265.

³⁵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trans. A. W. Morrison. Volume I (Grands Rapids: Eerdmans, 1972), 48; idem,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200.

³⁶ Ibid., 264.

³⁷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 of St. Peter*, 115.

³⁸ 존 T. 맥네일, 『칼빈 기독교 강요』 (제2권), 188.

그림자로 간주하심으로써 성소의 절차를 따라 희생 제사를 대신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제사 직을 완성하셨다고 주석한다.³⁹ 칼빈은 이것은 '율법적 예배'⁴⁰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칼빈의 이해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관한 주석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⁴¹ 우리는 칼빈의 종교개혁이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을 교회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교회에서 예배 절차의 갱신과 교리문답 공부의 강화와 주일학교의 활성화를 통해서 개혁교회의 예배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⁴²

이상으로 칼빈의 신약성서 주석에 나타나 있는 *λατρεία*에 관한 주석에 의하면,

라트레이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곧 라트레이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 특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라트레이아는 예배의 절차나 순서뿐만 아니라, 예배 전체의 예식과 예전을 의미하는 단어이다(참고 출 12:26 LXX; 대상 28:13 LXX).⁴³

*λατρεία*의 의미는 *leitourgia*와 아주 유사하지만,⁴⁴ 그 실질적인 의미

³⁹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trans. T. H. L. Parker. Volume II (Grands Rapids: Eerdmans, 1972), 236.

⁴⁰ Calv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0*, trans. T. H. L. Parker (Grands Rapids: Eerdmans, 1959), 100.

⁴¹ Ibid., 211.

⁴² Josef Manuel Saruan, "Ecclesiology of Calvinism and Its Development: A systematic Theology Reflection," *Calvin in Asian Churches*, vol. 2 (Seoul: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2004), 141.

⁴³ 소기천, "신약성서에 나타난 레이투르기아(섬김)의 기본 구조", 19.

⁴⁴ 이 문제 관해 김성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철심인역에서 라트레이아의 동사형 라트류오는 거의 섬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역시 고정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외형적 예배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동시에 의미하는 용어로 나타난다. 명사 라트레이아는 철심인역에서 9회 사용되는데 동사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수 22:27; 대상 28:13; 마카베오 1서 1:43; 2:19, 22). 신약에서 라트류오는 21회 사용되는데, 예전적 의미를 잃고 믿음에 의한 마음의 예배를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참고 행 24:14). 여기서 중

는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게 판이하게 다른 의미로 신약성서에서 동사형 라트류오는 다음과 같이 총21회에 걸쳐서 더욱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개역개정판): 마 4:10(섬기라), 눅 1:74(섬기게), 눅 2:37(섬기더니), 눅 4:8(섬기라), 행 7:7(섬기리라), 행 7:42(섬기는), 행 24:14(섬기고), 행 26:7(섬김으로), 행 27:23(섬기는), 롬 1:9(섬기는), 롬 1:25(섬김이라), 빌 3:3(봉사하며), 딤후 1:3(섬겨 오는), 히 8:5(섬기는 것), 히 9:9(섬기는), 히 9:14(섬기게), 히 10:2(섬기는 자들), 히 12:28(섬길자니), 히 13:10(섬기는 자들), 계 7:15(섬기매), 계 22:3(섬기며).

이상의 구절들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 이 우리말 번역 상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단순하게 '예배'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그 의미를 새기면 문맥상으로 가장 잘 어울린다. 이상의 구절들 중에서 칼빈이 신약성서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만 살펴보자. 특히 칼빈은 에베소서 4장 24절의 '의로움'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의 노래와 관련을 지어서 주석하면서 '기록함'과 '의로움'(눅 1:74-75)으로 드러져야 할 예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일깨워주고 있다.

플라톤 역시 *δσιότης*(기록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요소라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로움도 인간이 간직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⁴⁵

이러한 주석을 통하여 칼빈은 예배하는 자들이 기록함과 의로움을 간직

요한 것은 라트류오가 예전적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전적 의미가 지닌 폐해를 교정하고자 사용한 점이다. 실제로 히브리서는 라트류오를 6회 사용하는 중에 4회(8:5; 9:9; 10:2; 13:10)는 전형적인 구약의 성전예배를 지칭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회(9:14; 12:28)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바울 역시 라트레이아를 사용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러나 1장 9절에서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강조한다." 참고, 김성규, "소기천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109.

⁴⁵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191.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에 관해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라트류오라는 동사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참고 행 7:7).⁴⁶ 무엇보다도 칼빈은 로마서 1장 25절에 관한 주석에서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시대가 참 하나님보다는 거짓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⁷ 그래서 칼빈은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주석하면서(행 17장)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나무나 돌, 혹은 금과 같은 것으로 형상화하여 그들의 가까이에 두고 예배한다고 안타까워한다.⁴⁸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numen*)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적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빌립보서 3장 3절을 주석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칼빈은 강조한다.⁴⁹ 이러한 예배는 바로 유대인들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받은 신앙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기에, 그 신앙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칼빈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주석한다.⁵⁰ 그러므로 이방인인 수가성의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비롯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4:22)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다.⁵¹

⁴⁶ Calvin, *The Acts of Apostles 1-13*, 178.

⁴⁷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36.

⁴⁸ Calvin, *The Acts of Apostles 14-28*, trans. John W. Fraser and W. J. G. McDonald (Grand Rapids: Eerdmans, 1965), 122.

⁴⁹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269.

⁵⁰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290.

⁵¹ *Ibid.*, 291.

무엇보다도 신약성서에서 예배에 관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책은 히브리서이다. 히브리서에서 예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다[히 8:5(섬기는 것), 히 9:1(섬기는 예법), 히 9:9(섬기는), 히 9:14(섬기게), 히 10:2(섬기는 자들), 히 12:28(섬길지니), 히 13:10(섬기는 자들)]. 이미 히브리서 9장 1절의 명사형인 λειτουργία는 이미 위에서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지 않겠다. 동사형인 라트류오에 관하여 칼빈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그 가운데 몇 개를 언급한다.

특히 히브리서 8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파기된 옛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탁월한 중보사역을 감당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땅(모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늘(원형/실재)에 근거하고 있음을 언급한다(히 8:2-5).⁵²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칼빈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만을 예배하였다고 비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는 율법 절차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⁵³ 히브리서의 기사는 인간의 양심이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히 9:14). 칼빈은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행실'을 침례하게 대립시킨다. 곧 칼빈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아무 행실로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⁵⁴

안타까운 것은 칼빈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주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요한계시록의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⁵⁵ 더

⁵² 소기천, 고원석, 이연길(공저), 『히브리서-인도자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성경교재 19(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124.

⁵³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 of St. Peter*, 106.

⁵⁴ *Ibid.*, 122.

이상 탐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⁵⁶ 여기에 한 가지를 부연설명하자면, 신약성서에서 *λατρεία*는 동사형인 라트류오와 더불어서 '예배' 혹은 '경배'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예를 들면, 마 4:10; 눅 1:74; 눅 4:8-참고 신 6:13; 요 4:20-24; 행 7:7-참고 출 3:12; 행 24:14; 행 27:23; 히 9:14; 계 7:15; 22:3). 이 구절들에서 라트류오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면 신약성서에서 두 단어 곧 *leitourgia*와 *latreia*의 의미가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 두 단어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레이투르기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여러 가지 예배하는 자들이 가지는 섬김의 직무를 가리킨다. 그러나 개혁신앙의 전통에서 레이투르기아가 뜻하는 예배를 위한 섬김은 단지 전문적인 예배하는 자들만 감당하는 것이

55 송영목,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68-60: "계시록 전체에 예배 언어가 스며들어 있다. '찬양하다'(αἰνέω)는 19:5절에, '감사하다'(εὐχαριστέω)는 11:17절에, '감사'(εὐχαριστία)는 5:12-13절과 7:12절에 등장한다. '노래하다'(αἰδω)는 5:9, 14:3, 15:3절에, 명사 '노래'(ὄδῆ)는 동일 구절에 등장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신원을 바라며 '외친다'(κράζω, 6:10). 구속 받은 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외친다'(7:10). '영광을 돌리다'(δοξάζω)는 15:4절과 18:7절에 등장하고, '영광'(δόξα)은 빈번히 등장한다(4:9, 11; 4:12; 11:13; 14:7; 16:9; 19:7). 영광과 관련된 용어인 '명예'(τιμή)는 4:9, 11절, 5:12-13절, 그리고 7:12절에 나타난다. 성도의 '기도'(προσευχή)는 5:8절과 8:3-4절에 나온다. 그리고 '아멘'(ἀμήν)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1:6, 7; 3:14; 5:14; 7:12; 19:4).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후에 등장하는 '할렐루야'(ἁλληλουιά)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계 19장에만 나타난다(1, 3, 4, 6절).1) 위에서 언급된 성도가 드린 기도 용어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지상의 성도의 예배를 가리키지 않는다. '섬기다'(λατρεύω)는 7:15절과 22:3절에서 볼 수 있다. '성전'(ναός)은 계 7:15절과 11:1절 등에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배 동사인 '경배하다'(προσκυνέω)가 계시록 전체에 걸쳐 24회 등장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송영목 교수는 요한계시록의 *latreia*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56 이 외에도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에 관한 연구들은 김추성,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와 찬양: 계시록 4-5장을 중심으로," 『제43차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발표회』, 그리스도신학대학교(2004); 이승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주적 예배와 우리의 예배," 『제3차 프로 에클레시아 신학회 신학논문 발표회: 요한계시록과 교회의 미래』(2002); 이달, "하늘과 땅의 예배: 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의 서사적 기능," 『한남대학교 논문집』 29(1999): 195-208 등이 있다.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7절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레이투르기아는 비단 라트레이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케리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다이코니아를 위한 데까지 그 섬김의 역할이 이어진다. 그러나 라트레이아는 예배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케리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다이코니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통하여 영적으로 구체화되는 각각의 영역중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⁵⁷

이러한 이해에 의하면, 신약성서에서 *leitourgia*는 섬김의 영역이 아주 큰 반면에, *latreia*는 단지 예배나 예배 절차에 국한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신약성서에 나타나 있는 *leitourgia*와 *latreia*에 관한 칼빈의 이해는 예배의 윤리적 관점 곧 섬김의 차원을 드러내주고 있다. 칼빈이 주목한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 교회가 중시해야 할 개념이다. 무엇보다도 신약성서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지향하여야 할 궁극적 방향을 지시하기 위하여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 신약성서는 예전적 예배가 간과하기 쉬운 마음의 예배를 섬김과 봉사라는 차원에서 예배를 강조하기 위하여 *leitourgia*와 *latreia*를 상호 연결 짓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leitourgia*가 *diakonia*와 그 개념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항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5. *leitourgia*와 *diakonia*

신약성서에서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인 *leitourgia*와는 달리 *diakonia*는 봉사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동시형 다이코네오('봉사하다'란 뜻)와 또 다른 명사형인 *diakonos*('봉사자' 혹은 '일꾼'이란 뜻)와 함께 아주 빈번하게 등장한다. 비록 테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처럼

57 소기천, "신약성서에 나타난 레이투르기아(섬김)의 기본 구조", 21.

διάκονος란 단어가 συνεργός란 단어와 여러 사본에서 교차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디모테를 하나님의 동역자 보다는 바울의 조력자란 의미를 강화하는 의미로 이해하여 본문을 συνεργός로 확정하는 것이 낫을 듯하다.⁵⁸ 칼빈도 테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의 헬라이어 본문을 συνεργός로 확정하면서도 동시에 συνεργός를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인 '형제'와 동일시하여,⁵⁹ 디모테를 바울의 조력자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διάκονος와 συνεργός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다. 오히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는 διάκονος란 단어의 의미와 아주 유사하게 ὑπηρέτης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ὑπηρέτης는 독립적으로 일을 행하는 동역자라기 보다는 누군기를 돕는 조력자란 뜻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⁶⁰ συνεργός의 의미 곧 조력자로 이해하는 것이 낫다. 이런 차원에서 칼빈도 마가 요한을 복음 선교의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다.⁶¹

신약성서에서 διακονία는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 등장하기 때문에,⁶²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우리말 번역(개역개정판)에 의존하여 소개해본다: 막 9:35(섬기는 자), 막 10:45(섬김, 섬기려 하고), 행 6:1(구제), 행 6:2(접대), 고후 9:12(직무), 고후 9:13(직무), 엡 4:12(봉사), 딤후 1:12(직분), 디모테전서 3:13(아름다운 지위).

⁵⁸ 이와는 달리 울로그와 로제는 동역자인 συνεργός를 조력자인 διάκονος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참고, W.-H. Ollrog,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WMANT 5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73; E. Lohs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 ThW 2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83), 153.

⁵⁹ Calvi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352.

⁶⁰ J. Roloff, *Die Apostelgeschichte*. NTD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198.

⁶¹ Calvin, *The Acts of Apostles 1-13*, 356.

⁶² 본 논문에서 διάκονος가 물질적 도움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 구절들, 이를테면 행 11:29, 롬 15:31, 고후 8:4, 9:1, 12-13처럼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역의 일부로 간주하는 관점은 생각하고자 한다. 참고, 신현우, "소기친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한국개혁신학회 제27차 정기학술대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9년 11월 7일. 한국개혁신학회), 103.

칼빈은 사도행전 6장 1-2절을 주석하면서 초기 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 선택되고(행 6:5) 안수 기도하여 세워진(행 6:6) 7명의 일꾼을 '집사'로 부른다.⁶³ 그들이 집사로 불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사도들에 의해 '구제'와 '접대'를 위해 세워졌는데, 바로 이 목적을 가리키는 단어가 διακονία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일꾼을 뜻하는 단어와 동의어인 집사란 단어가 διάκονος로 이해된 것이다.⁶⁴ 이로써 사도들은 전도의 직무에 집중하게 되었고, 집사는 봉사의 직무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런데 칼빈은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 봉사의 직무에 관해 언급하면서 바울도 봉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람이라고 주석한다. 여기서 칼빈이 주석하는 봉사는 λειτουργία이고, 직무는 διακονία를 의미한다.⁶⁵ 곧 λειτουργία가 우리말에서 봉사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은 섬김이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적어도 고린도후서 9장 12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에게 바울도 봉사의 사람으로 각인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런데 칼빈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고린도후서 9장 12절과 연관을 지어서 신실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봉사를 한다고 주석한다.⁶⁶ 그러므로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2절의 봉사의 직무에 관해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봉사가 요청된다."⁶⁷고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칼빈의 영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귀를 강조하기에,⁶⁸ 세상 속에서 봉사하는 것

⁶³ Ibid., 163. 칼빈은 집사를 봉사자로 간주하였고, 그 직분은 영속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293.

⁶⁴ 칼빈은 집사를 2가지 곧 (1) 구제를 위한 재정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복지행정사'(procureur)와 (2) 가난한 자들과 환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도우미'(hospitallier)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우리는 칼빈이 사회 복지 사역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안인섭, "칼빈과 정치," 『교회사학』 제8권 제1호(2008): 42.

⁶⁵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125.

⁶⁶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trans. A. W. Morrison. Volume I, 178.

⁶⁷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181.

차적 사용 혹은 균형 속에서 *διακονία*와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λειτουργία*와 *λατρεί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상호 교차될 수 있는 *λειτουργία*와 *διακονία*의 개념을 비교하였다. 이로써 섬김이라는 의미를 지닌 *λειτουργία*와는 달리 *διακονία*는 봉사라는 뜻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배와 섬김의 차원에서 연결되는 의미를 본 논문은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우선 예배를 *λατρεία*로, 봉사를 *διακονία*로, 섬김을 *λειτουργία*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λειτουργία*와 *λατρεία*와 *διακονία*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그 의미에 있어서 서로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예배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칼빈이 자신의 주석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신약성서가 제시한 본래적 의미를 충실히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Abstract]

A Study of *λειτουργία* i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of John Calvin

Ky-Chun So, Ph. D.

(New Testament Theology/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vision the concept of *leitourgi/a* which is based on Joh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y. That is, the main concern of this work is exegetical.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concepts are investigated: 1. *λειτουργία*, 2. *λατρεία*, 3. *διακονία* on the bases of Calvin's usages of those concepts. In order to suggest the concept of *λειτουργία* i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of John Calvin, this pap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not only *λειτουργία* and *λατρεία*, but also *λειτουργία* and *διακονία*.

Surely, the concept of *leitourgi/a* is 'serving,' because there is another word, *λατρεία*, which is the New Testament means 'worship,' even though the inter-exchangeable meaning of *λειτουργία* is somewhat similar with *λατρεία* and *διακονία*. Hence, it cannot be a matter of confusing between the those three whether many Korean scholars just easily assume those meanings. In constructing the notion of Calvin's *λειτουργία* in the New Testament, this paper also regards the meaning of *διακονία* as 'service, but as mere Christians we mus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ose words in balance like serving for worship and serving for service.

• Key-Words: *leiturgia*, *latreia*, *diakonia*, Calvin, serving, worship.

[참고문헌]

- Battles, Ford Lewis. "Calculus Fidei: Some Ruminations on the Structure of the Theology of John Calvin,"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139-246
- Bauer, Walt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ition. Revised and edited by Frederick William Danker.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Calvin, John. *The Acts of Apostles 1-13*. Calvin's Commentary. Trans. John W. Fraser and W. J. G. McDonald. Grands Rapids: Eerdmans, 1965.
- _____. *The Acts of Apostles 14-28*. Calvin's Commentary. Trans. John W. Fraser and W. J. G. McDonald. Grands Rapids: Eerdmans, 1965.
- _____.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 of St. Peter*. Calvin's Commentary. Trans. William B. Johnston. Grands Rapids: Eerdmans, 1963.
- _____.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Calvin's Commentary. Trans. Ross Mackenzie. Grands Rapids: Eerdmans, 1973.
- _____.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Ephesians, Philippians and Colossians*. Calvin's Commentary. Trans. T. H. L. Parker. Grands Rapids: Eerdmans, 1965.
- _____.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Calvin's Commentary. Trans. T. A. Amail. Grands Rapids: Eerdmans, 1964.
-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0*. Calvin's Commentary. Tans. T. H. L. Parker. Grands Rapids: Eerdmans, 1959.
-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21*. Calvin's Commentary. Tans. T. H. L. Parker. Grands Rapids: Eerdmans, 1959.
- _____.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Calvin's Commentary. Trans. A. W. Morrison. Volume I. Grands Rapids: Eerdmans, 1972.
- _____.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Calvin's Commentary. Trans. T. H. L. Parker. Volume II. Grands Rapids: Eerdmans, 1972.
- Josef Manuel Saruan. "Ecclesiology of Calvinism and Its Development: A systematic Theology Reflection." *Calvin in Asian Churches*, vol. 2. Seoul: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2004.
- Jasper, R. C. D. "Liturgies," *A New Dictionary of Liturgy and Worship*. Edited by J. G. Davies. London: SCM, 1986.
- Lee, Eung-Bong. "Das Verständnis der Funktion des Präskripts im Römerbrief", Th. D. Dissertation. Bielefeld: Kirchliche Hochschule Bethel, 2007.
- Lindemann, Andreas. "Johannes Calvin als Ausleger der Heiligen Schrift."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cal Studies*, 3 (2009).
- Ollrog, W.-H. *Paulus und seine Mitarbeiter*. WMANT 5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9), 73; E. Lohse, *Die Entstehung des Neuen Testament*. ThW 2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83).
- Roloff, J. *Die Apostelgeschichte*. NTD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 Saruan, Josef Manuel. "Ecclesiology of Calvinism and Its Development: A systematic Theology Reflection," *Calvin in Asian Churches*, vol. 2. Seoul: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ress, 2004.
- 김성규. "소기천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한국개혁신학회 제27차 정기학술대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9년 11월 7일. 한국개혁신학회), 108-110.
- 김추성.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와 찬양: 계시록 4-5장을 중심으로." 『제43차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발표회』 그리스도신학대학교, 2004.
- 박경수.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소기천. "신약성서에 나타난 레이투르기아(섬김)의 기본 구조." 『성서학연구원 저널』 (2009년 6월/vol. 2).
- 소기천 고원석, 이연길(공저). 『히브리서-인도자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성경교

- 재 19.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 송영목.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한국개혁신학회 제24차 정기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8년 5월 24일).
- 신현우. “소기천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한국개혁신학회 제27차 정기학술대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9년 11월 7일, 한국개혁신학회), 103-107.
- 안인섭. “칼빈과 정치.” 『교회사학』 제8권 제1호(2008).
- 유해룡. “칼빈의 영성학 소고.” 『장신논단』 16(2000).
- 요셉 리차드. 『칼빈의 영성』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 이달. “하늘과 땅의 예배: 계시록에 나타난 예배의 서사적 기능.” 『한남대학교 논문집』 29(1999).
- 이수영. “경건론” 『칼빈신학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승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주적 예배와 우리의 예배.” 『제3차 프로 에클레시아 신학회 신학논문 발표회: 요한계시록과 교회의 미래』, 2002.
-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범지, 2005.
- _____. “한국교회의 예배변화와 예전의 문제점.” 한국개혁신학회 제24차 정기학술 심포지엄 자료집(2008년 5월 24일).
- 존 H. 리스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최운배. “갈방의 경건으로서 영성.” 『개혁교회의 경건론과 국가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 칼빈의 종말론적 교회 이해 연구

김 요 섭 (칼빈대학교, 역사신학)



칼빈은 그의 저술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긴밀하게 연관해 설명한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칼빈의 설명에 전제되고 있는 신학적 기초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첫째,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가시적 교회에 부여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전제하면서 이 두 실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칼빈은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의 “홀”(scepter)이라고 부르면서 그 권위를 구원역사 가운데 설명한다. 그리고 구원역사 가운데 가시적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기관(agent)”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와 밀접한 관계는 항상 말씀의 사명을 부여받은 독특한 신적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에 기초한다. 둘째, 칼빈은 교회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다고 설명할 때 가시적 교회의 이 사명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